

영세충예
비치영

대학 내 여성노동 대 토론회



2002년 1월 12일 토요일

대학 내 여성 노동 운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준비모임
'맷돌 굴리기'

(연대총여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살맛나는 세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이해하기 쉽게



2003년 1월 18일 발행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다들 물어봐'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목 차

0. 여는 글 . 2

-----〈제1부-2001년의 흐름과 성찰적 분석〉-----

(1) 여성관련 노동법 사안의 쟁점과 과제 . 4

(2) 좌파의 여성 노동 담론, 어떻게 볼 것인가? . 17

-----〈제 2부-실천적 대안의 모색〉-----

(3) 여대생의 노동 의식과 여성주의적 전략 세우기 . 24

(4) 2002년 대학 내 여성 노동운동,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 45
(발제 및 자유 토론)

☆☆☆ 여는 글 ☆☆☆

>>> 왜 다시금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노동'을 말해야 할까?

한 때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웬만한 TV드라마에서는 이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멋진 '커리어우먼'이 나와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고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여주인공들은 당당히 맞선다. 어디 그 뿐인가? 2001년 폭두세벽에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던 '여성부'의 공식 출범에 이르렀고 이제 갖은 전통 끝에 출산휴가, 육아 휴직도 국제적 수준으로 올려졌다. 바야흐로 조선일보식 표현대로 '수컷들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일까?

절/대/그/렇/지/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중심부 국가에선 모 여자 총리의 치적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반주변부인 남한 사회에 있어 지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 속의 지위가 지위인 만큼 남한에서의 구조조정은 자본측의 구조조정보다는 노동유연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전략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노동 유연화의 측면은 다각적이다. 현재 노동과정에서의 유연화, 노동 시간의 유연화, 고용 형태의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여남 노동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부장제'라는 세균이 '자본주의'의 배지에서 생존하며 번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하는 그들의 '유연화 전략'은 바로 '가부장적 고용전략'이다. 위기 시 가장 먼저 해고가 된 여성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이미 비정규직화하였고 신규 여성 취업자들의 비정규직화가 나날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남한의 유교적 가부장제는 여성의 일을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여성을 비공식 부문으로 밀어넣는 데 성공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은 뿌리깊은 성차별주의로 인해 폄하되며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에 의해 저임금이 정당화된다. 또한 남성 중심적인 노동 개념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 혹은 특수 고용직, 그리고 가내 노동자 형태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박탈하여 조직화를 방해한다. 고로 여성의 노동력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주 타겟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취당하게 된다. 정말 끔찍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행복한 결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의 여성 노동 정세의 특징은 노동 시간의 증가와 여성권의 박탈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절대적 착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성은 생산 영역에서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서의 착취도 감내해야 한다. 국가의 공공부문 지출 삭감으로 그나마 교육, 육아, 보건의료에서 사회적으로 담당해 왔던 부분이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보살핌 노동'으로 전가된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의 증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의 어려움, 성매매로의 유입 등이 신자유

주의 질서 재편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러한 설명 방식이 이질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의 제 모순은 각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가부장제는 인종주의, 자본주의 등 다른 모순들과 접합지점을 가지며 존재하며 그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작동 양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왔다. 그러므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관심도 좀 더 폭넓게 자리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작업도 멈추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동안 묻혀졌던 '여성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당장에 해답이 나지 않을 쉽지 않은 고민 지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 노동'이라는 주제가 단지 많은 주제들을 일시적으로 물리치게 하는 단기적 사안이 되지 않은 채, 오늘의 관심과 열정이 내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여성 노동'만이 아니라 잊혀진 사안들, 새로 발굴되는 주제들이 대학 내 여성운동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토론회에서 4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은 지난 해 가장 첨예한 사안이었던 '여성 관련 노동법'이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고 상당수의 여성주의자들이 그저 혼란만을 물어둔 채 고민을 심화시키고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놓쳤었다.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이미 통과된 법안이 개정/개악이다, 혹은 투쟁이 이뤘어야 한다, 이런 데 있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와 한계를 지닌 결과를 남겼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안에서 주목해야 할 여성주의적 원칙과 대학 내 여성주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말해보고 싶다.

다음은 '좌파의 여성 노동 담론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주제이다. 지난 해 들어 양 노총, 각 진보 정당, 학내 좌파 학생정치조직에 의한 여성 노동권 관련 발언들이 무성해졌다.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의 실속이 있을까? 반면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 노동에 관한 발언이 어느새 부쩍 줄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나름대로 맥락이 있었던 선배들의 좌파에 대한 비판을 그저 선형적인 거부감으로만 가져가지 않았는지, 혹은 함께 학내 정치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서로의 활동에 대해 이유 없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이 텅의 목적은 그들의 여성 노동담론의 허와 실을 들여다보며 여성주의 진영의 관성적이었던 면모들을 성찰해보고 서로 간의 건강한 비판과 책임을 통해 제대로 된 '여성노동 담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대학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대생들의 노동 의식을 인터뷰 작업을 통해 분석, 정리하여 보며 과연 학내를 기반으로 한 여성 노동 운동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텅이다. 여성 운동의 일상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내의 여성 노동운동이 공허한 사안의 선전이나 반대로 사회단체와의 몸대주기 식의 연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며, 아울러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자.

끝으로 안정적으로 올 한해의 여성 노동 정세를 함께 분석하며 대학 사회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실천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순서이다. 진정으로 함께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연대의 끈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1. 여성관련 노동법 사안의 쟁점과 과제

1. 모성보호 투쟁과정 리뷰 및 평가

1) 모성보호 투쟁과정과 법안 내용

▶ 연대회의 발족과 모성보호법 개정안 통과까지

2000년 4월 10일 정부가 모성보호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6월 26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0년 8월부터 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국, 3개의 여성단체(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2개의 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이 모여, 여성노동자관련법개정 연대회의를 꾸렸고, 법개정 청원을 했다.

2001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 안이 나왔고 연대회의 내에서 시간외 근무 금지조항 삭제 등에 대한 이견을 표출한 단위(민주노총, 서울여성노동조합)가 빠지고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발생했다. 결국 2001년 6월에 환노위 안대로 통과되었다.

▶ 개정, 공포된 모성보호관련법 주요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① 남녀고용평등법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②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간접차별은 지난 '9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도입되었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여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법개정시 간접차별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간접차별은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첫째,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특정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둘째,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셋째,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간접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중전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 부과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수단이 없어 이법의 시행상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④ 남녀고용평등의 자율적인 실현을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신설

⑤ 채용, 승진, 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평등위원회가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해결 기

구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⑦ 전체 파견근로자의 60%를 상회하는 여성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의무를 부과하였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달라 양 사업주 모두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법개정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지위, 명령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⑧ 남녀고용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조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등의 차별적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와 그 효과가 같음에도 벌칙이 현저히 낮아 법 적용에 형평성을 기하기 어려웠다.

⑨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60일 → 90일) 및 사회분담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비용의 사회분담 비율을 높인다. 신전후휴가기간 중 최종 30일분의 임금은 재정과 사회보험에서 지급토록하여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⑩ 남성노동자도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중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

⑪ 현행 법률에서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여성도 근로자이어야만 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통해 소득의 일부 보전

(2) 근로기준법

①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 규정 완화

중전 개정내용: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현행 개정내용: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노동자의 동의서)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 임신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 휴일근로 제한 규정 강화

③ 일률적으로 여성의 경내근로를 금지하던 조항을 취재, 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함

④ 근로기준법상 "여자"를 "여성"으로 개정하여 사회적으로 평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지위를 나타냄

개정된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

▶ 쟁점 정리

논쟁의 쟁점이 되었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63조(사용금지), 68조(야간휴일근로 금지), 69조(시간외근로), 70조(경내근로금지)이다.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쪽 입장

야업·휴일근로제한을 완전히 풀었다고 볼 수 없다. 개정 전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업·휴일근로 제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금지였으나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수월했고 그만큼 별다른 제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다수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야업·휴일근로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야업·휴일 근로제한 조항은 노동부의 인가라는 점을 삭제한 것이며 사업주가 야업·휴일근로를 시킬 때 노동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제한조항을 두었다.

한편 그간 임신부(임신 중인과자 출산 후 1년 미만인자)에게도 현행법 내에서 야업·휴일근로가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 환노위 대안에서는 본인의 동의서,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더불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임신부의 야업·휴일근로를 보다 더 제한함으로써 모성보호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행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일 2시간, 주 6시간, 년 150시간)조항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여성직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여성노동자가 초과취급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일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단협을 통해 여성노동자가 장시간노동을 하지 않도록 해 왔다.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차별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 저임금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리고 여성의 시간외근로 금지조항 때문에 인원제한을 받는 것은 불평등하지 않다는 관례가 있다.

따라서 그간 여성노동계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평등 강화,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확대를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로 제출해 왔고, 노동시간은 차별의 근거가 되는 여성에 대한 제한을 남녀노동자 모두의 동일한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즉, 시간규제는 여성보호로써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장시간 노동조건은 남녀를 불문하고 단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그 대안의 투쟁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핵심 내용이 주40시간과 연장근로 규제, 휴일확대 등인 것인 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이후의 강력한 투쟁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악 쪽 입장

이번 모성보호법 개정은 현행보다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를 확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 규제 완화는 여성을 비롯한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번 68조, 69조 개악은 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 기도 등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근기법 69조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을 산후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토록 한 법안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개정하고 하반기에 가서 남녀 모두의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전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 지금 여성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서 남녀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투쟁에 힘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 규제 완화는 비단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관철시켜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 완화는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관철되는 과정, 노동법 개악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동의하고 넘어간다면 이후 노동시간단축 투쟁,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육아, 가사에 대한 사회적 대안 없는 여성보호조항 삭제는 반대한다.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 규제를 소위 '남녀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남녀가 평등하게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규제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은 남녀 모두를 야간근로, 장시간노동에 내몰리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의 완화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동안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주요인은 여성노동에 대한 부당한 평가, 임신과 출산, 모성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이 오히려 더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 법의 완화가 고용확대, 차별해소의 효과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악영향의 요인이 현실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가사와 육아부담이 여전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대안 없이 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퇴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의 야간근로, 노동시간연장이 가사와 육아문제를 여성에게만 맡기는 현실의 성역할 분업을 완화시키기 보다 당장에는 가사와 육아문제를 해결할 길 없는 여성들의 퇴직을 촉발할 것이다. 성역할 분담을 완화하기 위한 육아지원조치 등 사회적 대책이 선행되는 것이 법개정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

이번 모성보호법 개정에서 산전산후휴가의 90일 연장, 그 중 30일 분의 사회분담화 명시, 간접차별의 구체화, 성희롱 처벌의 확대 실시 등의 남녀고용평등법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그 동안 산전산후휴가의 비용을 기업부담으로 부과해 기업이 여성고용을 회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던 점, 그리고 출산을 하는 여성의 휴식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던 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고용평등법에서 간접차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아 신규취업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70%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성희롱을 당하

는 비율이 높아서 여성의 노동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한 부분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 전략이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관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조항을 확대하고 야간·휴일 근로 제한조항을 푼 것이 지금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변형근로제 등과 같은 노동 유연화 정책과 맞물리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여성노동자의 초과착취가 여성의 노동권, 건강권을 더욱 해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전의 야간·휴일 근로 제한조항이 실효성이 없지만 그렇다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시간외근로 확대 이후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이어가는 전략이 얼마만큼 유효할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과 임신하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여성만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전 여성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로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법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노사정위에서는 생리휴가 무급화를 상정해놓고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계계의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투쟁이 시급하다. 그리고 애초에 기대했던 태아검진휴가, 유산산휴가 등이 통과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번 투쟁과정에서 '여성은 민족의 대를 이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여성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여성은 잠재적 어머니로서의 모성보호가 필요하다'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모성보호 담론(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개념, 왜 여성에 대한 제한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 평가-대학 내 여성 단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모성보호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으로 유례없이 사회의 모든 여성단체들을 단일 사안으로 모이게 할만큼 그 비중이 큰 주제였다. 그러나 입법화 투쟁 과정에서 여러 한계들이 드러나곤 하였다. 특히 남한 여성운동의 오랜 관성인 법개정 운동 중심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노동법 개정을 목적으로 연대회의가 꾸려진 것이긴 하지만, 법조항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효과, 그리고 법조문보다 뒤쳐진 대중의 인식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여성계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초과 착취의 경향, 후퇴하는 여성

노동조건과 관련짓기보다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출산율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 '모성보호가 보장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기피한다.') 혹은 '모성을 선택할 권리'에서 찾으며 여론 형성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경총 등 자본가 집단과 자민련 등 일부 보수 우익을 제외하곤 별다른 반발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모성보호를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근본적 권리'로서 재규정하는 작업에는 실패하였다. 이렇듯 해당 사안을 이데올로기 투쟁으로서 가져가지 못하였던 점이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지 않나 한다. 더구나 여성계의 모성보호 확대 입법 요구안 중 하필 '출산휴가 확대'가 대표성을 획득한 것이 비단 여성계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여성들에게 '고정된 성역할을 강화하는 장치', 혹은 '모성보호는 임신한 여성들만의 문제'라는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환노위 안을 둘러싸고 입장이 나뉘던 어느 쪽에서도 개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어가겠다, 혹은 개정을 저지했을 때 어떻게 투쟁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없는 채 입장의 대립만 난무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법안 통과 이후 연대회의에서는 시행령 검토작업이나 모성보호법 통과 이전에 임신부를 해고하려는 사용자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개했지만 주5일 근무제, 또 이와 연동된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악 입장을 펼쳤던 단위에서도 법안 통과 이후 모성보호법안의 한계나 생리휴가 폐지 등에 대한 대응이 입장서 제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미비한 대응

한편 정부의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추진이 결정되고 2000년 8월에 연대회의가 꾸려지는 등 일련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학내 여성단위는 이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일부 단위를 제외하고는 2월, 4월 국회에서 모성보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던 시기, '모성보호 시기상조론'에 대한 반박 자료를 붙이는 정도의 관심 표명이 대부분이었다.¹⁾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5월 메이데이 시기를 놓치며 노동 사안에 대한 공동의 고민을 모아내는 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윽고 5월 중순 여성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연대회의의 내부가 갈라서는 국면을 아무런 준비없이 맞게 되자 이에 각 대학 내 단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상당수의 단위들과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논란이 된 조항을 비롯한 여성관련 노동법 내용과 개정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조차 알지 못하기도 하였고 '환노위안을 지지하는 입장'과 '근기법 개악 반대'의 입장 양자가 대립하는 시기에서는 더욱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6월 26일 모성보호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은 식어갔고 여성단위의 혼란을 정리하고 입장을 만드는 것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말았다.

▶여성 노동에 대한 고민의 정체

- 1 그러나 모법에서는 "국가가 고학력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모성보호 필요"라는 자료의 구절로 일부 운동 진영으로부터 '부르주아적 관점'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
- 2 단적으로 99년과 00년에 꾸려졌던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이 결성되지 못하였다.

대학 내 독자적 여성 운동 진영에서 본격적인 여성 노동권에 대한 발언은 IMF라는 정세 속에서 시작되었다. 98년 일부 단위의 노동절 선전전을 시작으로 하여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의 결성, 99년, 00년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으로 이어졌으며 여성우선 정리해고, 가족임금제와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신규여성실업, 여성의 비정규직화, 진보진영의 가부장성 철폐 등이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내용의 정교화 작업에는 그리 성공하지 못하였고 여성주의자로서 여성 노동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 내 여성운동이 '모순의 일상성'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 노동이라는 주제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리하여 각 단위에서 스스로 관심을 갖고 내용을 생산하려는 의지가 'sexuality'에 비해서 적은 경향과도 이어진 측면도 다분하다.

그러나 각 대학의 여성 운동 단위들이 의도적으로 '노동'이라는 주제를 배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해 봄 살맛의 '여성노동학교'에 참석한 단위들도 비교적 많았고 관악여모의 여성 노동 워크숍은 여성 노동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⁴⁾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다행히도 현재 여성 단위들 사이에서 노동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 하나 아직까지 '대학 내'에서 '여성노동권'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개의 단위가 외부에서 '이슈가 터져주기'를, '누군가가 제안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은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회가 잡히면 결합하더라도 이를 학내에서 대중활동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90년대 중반 처음으로 여성운동 단위들이 등장할 때와는 달리 점차 운동의 방법이 자족적 문화관 일변도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 같은 분위기가 한 몫하고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 그리고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전처럼 험겨운 싸움(운동 진영이건, 학교 당국, 혹은 일상의 가부장이건)에 에너지를 투입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경향이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⁵⁾ 이로써 대학 내 여성운동의 주제가 점차 협소화된 데다 반성폭력 학제제정 운동의 고양 등으로 학내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이라는 주제는 축소되었다. 반면에 근래 들어 좌파의 여성노동발언이 많아지면서 겉으로 보기에 '반성폭력'이라는 주제는 여성운동단위가, 여성 노동은 좌파'라는 기이한 역할 분담이 나타났다.

▶안정적인 여성노동 모임의 부재와 고민의 단발성, 그리고 풀지 않은 공백.

3 이후 여노대련

4 그러나 많은 여성단위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이후 이 결과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공백을 메워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 고민을 하지는 못하고 단발적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5 아직까지 독자적 여성운동이 구축되지 못한 행들이 많다는 점, 이제 여성운동을 시작한 행도 존재한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일찍 여성운동을 시작한 단위의 일각에서 이러한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경계할 일이 아닐까. 아직 갈 길은 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좌파에서 여성 노동을 말하는 것은 좀 믿음직스럽지 않은 구석이 있고, 여성주의 진영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발언도 해야되긴 하겠는데,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보한 채로 여성노동권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정리하자면

1)여성주의자로서 여성노동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2)학내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개의 지점을 풀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질문인 것은 틀림없으나 때로 당위적으로, 때로는 단발적으로 주체들이 갖게 되는 여성노동에의 고민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이를 실천으로 안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던 것이 큰 문제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분명히 99,00년 여/성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인상적인 공동 활동의 경험이었고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⁶⁾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성노동권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데다 안정적 논의 공간의 부재로 인하여 그전에 공유되고 합의된 것이 없이 1년에 한 번 있는 메이데이 기획단을 제안하는 단위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구도가 되고 말았다. 즉, 일부 단위가 '총대를 메고' 하였던 활동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2001년의 메이데이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⁷⁾

여하튼 그렇게 한 해가 흘렀고 현재 여성단위의 저학번 인자들 중에는 여성노동 사안을 바탕으로 한 대학 내 여성운동 진영의 연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였더라도 고민을 하지 못했던 주체들이 많아졌다. 이제 더 이상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2. 2002년의 정세 전망

이미 2001년 하반기에 이미 예고되었듯이 정부는 이른바 '주 5일제 근무'와 맞물려 생리휴가와 주휴일 무급화를 강행할 분위기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허나 문제는 이에 대한 투쟁의 동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점이다. 어떤 면에서 양대 노총이 지난 투쟁의 원군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연대회의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보이듯 상대적으로 막강한 조직력과 영향력을 갖춘 양대 노총이 나서면서 공대위의 힘이 커졌음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6 01년 여성연대 한판 자료집

7 관악의 경우 00년 메이데이에는 시스터엑트라는 실천단을 꾸렸지만 01년에는 실천단 대신 '여성주의자로서 여성노동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여성노동워크숍을 준비하였다. 한편 01년 연세 총여 인자들은 노동절에 '강철구 공대위'에 결합하였고, 살맛은 '차이와 연대 문화제'에 결합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2002년은 월드컵과 대선이 있는 해이다. 가뜰이나 어지간한 이슈들이 뜨기에 장애가 많은 한 해인데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도 우려해야 할 지도 모른다. 비록 민주노총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관련 투쟁에서 일치감치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다지 파급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며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다. 또한 어차피 주도권은 정, 재계가 갖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현재 민주노총의 경우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 여성노동자를 위한, 근기법 개악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성노동계의 올해 동향을 보자면, 일단 사회당 여위, 서울 여성노조 등은 '여성관련 근기법 개악 저지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생리휴가와 주휴일의 무급화 반대 투쟁을 독자적으로 가져가는 한편⁸⁾ 비



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공론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여노조는 최저임금제 확보, 비공식 부문 문제를 중심으로 올 한 해를 구성할 듯하다. 그런데 아직 어느 쪽이건 독자적으로 국회를 압박할 만한 여성계의 세력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더군다나 2001년 상반기 여성 관련 근기법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내부의 입장이 갈린 상태라 아직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기대할 수도 없기에 여성노동계의 힘은 더욱 미약할 수밖에 없다.

과연 가부장적 자본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혹자는 어차피 승부는 정해지지 않았느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지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수한 패배와 오류의 경험 속에서도 여성주의적 원칙들은 재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 노동운동 진영이 단련되고 사회적 동의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즉, 제도 개혁과 개악 저지에서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급진적 여성노동 담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어쩌면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3. 학내 여성운동 단위로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1) 모성보호법,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생리휴가 무급화

경영계에서는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휴일이 늘어나게 되니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의 주장대로 주5일제가 대규모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 했을 때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해당되는 생리휴가를 없애자는 것은 경영계 논리와도 모순이다. 특

8 2월 임시 국회 세기를 주시하고 있어야겠다.

히 여성노동자의 70%가 5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들은 주 5일 근무제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이로 인해 줄어든 노동분 만큼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확대, 여성의 비정규직화의 추세 등 근래 몇 해 볼 수 있었던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화의 흐름이다. 그리고 현재 생리휴가 수당이 여성들의 저임금을 다소나마 메우는 역할을 하고있음을 볼 때 생리휴가 무급화는 여성들의 임금 삭감과도 같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에게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의 쉼 권리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봐야 한다. 여성들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생리할 때 생리통을 경험하고 평상시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불편을 느낀다. 그렇다고 생리를 병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⁹⁾ 여성의 신체적 리듬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여성이 생리통을 겪으면서도 이를 꼭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노동을 하는 경험을 상상해보라. 이에 대해 경험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생리휴가가 없다는 점을 들지만, 그것은 나라마다 노동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휴가제도가 잘 돼있는 나라의 경우 굳이 생리휴가라고 지정한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나라같이 노동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특히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다시피 한 나라에서 생리휴가는 큰 의미를 가진다.

▷ 초과근로시간, 변형근로제 등 일련의 노동법 개악과 맞물리는 문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고정된 '여성 사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만의 사안'이 '여성 사안'인 것도 아니다. 이른바 '주 5일 근무제'와 맞바꾸어 국가 권력과 자본이 관철해 내려는 '노동 시간 유연화'도 얼핏 '모든 노동자'의 문제일 뿐인 것 같지만 동시에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남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의 대규모 사업장부터의 순차적 실시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의 손해분 만큼의 노동량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overload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영세사업장, 서비스직 등 여성들이 많은 직종의 경우 정 말 주 5일 근무가 실시될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이 같은 '중력의 법칙'을 적용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도 총 노동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별' 업종 중에는 물품판매, 금융보험, 통신업,接客업, 소각 및 청소업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한노총에서는 '운수업'만의 제외를 주장하고 있어 '남성 노동자의 이기주의'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좋은 말이다. '주 5일 근무' 멋진 말이다. 벌써 모 리버럴한 주간지에서는 '늘어난 휴일 멋지게 보내는 법'에 대한 글을 실기도 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가가 늘어남에 따라 레저, 외식 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도 제시한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생겨난 일자리는 어떤 성격을 지닐 것이며 누가 그곳을 메울 것인지를. 주휴 무급화, 변형근로제 확대, 월차의 연차 내 통합¹⁰⁾ 등등은 단지 '노동

9 그러므로 병가를 내는 것에 포함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생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인정 받아야 할 '차이에 기반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10 비정규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된다. ILO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임금을 제외한 권리-신체적 자율권, 노동방법의 결정 동등-가 박탈된다. 또한 신체가 노동과정에 구속된 상태에서 각종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자세를 강요받는 일도 적지 않다. 즉, 노동자의 건강권은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동자 건강 운동의 개념들은 물성적인 측면이 다분하였다. 흔히 산업재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계를 사용하는 남성 사업장에서의 사고(박노해의 시, '손무덤'에서 보듯)이다. 또는 갯안에서 탄을 캐던 광산 노동자의 진폐증이거나. 그 과정에서 만성질환이 대다수인 여성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묻히기 쉬웠다. 물론 최근 들어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건강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상당수의 여성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골프장 농약에 의한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별 분업화를 볼 때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노동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질환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을 이야기하려면 단지 작업장 안에서의 노동과정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다. 작업장 내의 작업장 외의 성별 권력 관계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한 지점이다. 여성들이 단순 반복 작업에 내몰리는 현상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재생산 노동까지 담당하는 이중 노동에서 오는 신체적 부담과 스트레스, 고객이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여성다운 외모¹³⁾ 등 이해의 폭이 더 넓혀져야 한다. 즉, 노동보건의 성별화, 성적 차이에 기반한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이 단지 여성의 출산, 임신에 관련된 생식기 질환에 대한 고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¹⁴⁾ 출산과는 관련없는 질환이라도 남녀의 유병률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질환을 얻더라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차이를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언급하였듯, 건강 문제와 노동 문제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노동력의 착취는 고임금으로 단순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지향은 '건강하고 즐거운 노동'이 아니겠는가. 고로 여성 노동 사안은 곧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여성의 건강권은 여지껏 남성의 노동경험과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하였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고민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성보호, 노동시간 단축, 생리휴가 사안에 있어서 그 초점은 '태어날 노동력'이 아닌 '여성의 건강'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12 즉, 농민 여성의, 노점상을 하는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도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비용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13 모CC경기보조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요구로 안경을 착용할 수 없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야 했는데(미관상의 이유) 이로 인해 각막 질환이 발생한 케이스가 있다.

14 노동 보건 운동을 해 왔던 산업보건자들 중 기껏 이 정도 수준에서 사고하는 경우도 목격하였다.

2. 좌파의 여성 노동 담론, 어떻게 볼 것인가?

1. 2001년, 정세를 돌아보며

2001년은 그 어느 해보다 좌파진영의 여성노동에 관한 발언이 많았던 해이다. 비록 법개정 움직임에 집중된 발언이었지만, 여태껏 좌파 진영에서 여성노동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내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러 좌파 학생 정치 조직들의 경우 지난 학생회 선거 시기 각 정파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정세 분석에 다소 기계적 어색함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성'노동권의 위기를 말하고 있었으며 그 전 해에 비해서 여성 관련 공약들도 많이 늘었다.

반면 대학 내 여성운동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좌파진영에 비해 별다른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학내 운동이 주로 반성폭력 사안에 집중되었고, '성교육', '연애 이야기' 등의 다른 'sexuality' 영역을 대중 운동의 주제로 삼은 단위로 있었지만 여성노동은 그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급기야는 1999년, 2000년에 꾸려졌던 '여/생'이 2001년 메이데이에는 꾸려지지 못하였으며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관련 근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내 여성운동 단위에서 그 나름의 고민을 갖고서 여성노동을 어떻게 학내에서 펼쳐 보일 것인지,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고민을 풀어내는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주의 진영 내부의 성찰이 요구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살펴보면 대학 내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에 대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좌파 진영은 이 주제에 대해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어 활발히 발언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혹시라도 '아니 우리 고유의 주제를 저들에게 빼앗기다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일단은 '여성노동자의 조건이 남성 노동자의 그것보다 열악하다.'는 선에서라도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내부의 여성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는 커진 반증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군다나 상당히 오랜 기간 "그대들의 '노동자 민중' 속에는 '여성'이 없음"을 비판해 오던 여성주의 진영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좌파는 노동의 성별화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도리어 여성주의자들이 그들의 '여성노동'을 배워야만 한단 말일까???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이들이 어떤 연유에서 여성노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내부에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며 조직적 차원의 공유가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입장에서 여성노동을 이야기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좌파의 여성담론

>>학생정치조직을 중심으로

변화 이제 누구나 '여성' 혹은 '여성주의', '여성억압'에 대해 이야기한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진보진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근 몇 년 전부터 대학 선거에서 여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선본이 없다는 것. 선거공약 자료집의 1쪽 정도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공간을 할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대학을 몇년 겪어오면서 보아온 변화들이다. 그리고 작년,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드러났다. 위의 언술한 바와 같이 지난 해 여성노동관련 근거법과 고령법안 투쟁과정에서 좌파진영의 '여성'에 대한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그리고 한 학생정치조직(이하 학정조)는 나름대로 당시의 노동법개정에 대해 정리된 논리들을 갖고 가열차게 투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노동에 대해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투쟁하지 않는 주류여성주의자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불변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학정조 외에는 여성관련 노동법개정 과정에 대해, 별 고민이 없었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반응도 '솔직히 잘 모른다' 혹은 '당시 별로 관심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단지 신자유주의와 노동착취의 공식같은 이야기는 줄줄 외며 '기거서 여성이 가장 취약하다' '착취 1순위다'라는 식의 계급문제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여성노동문제라는 이야기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어떤 조직의 경우 한 단위가 여성사안을 전담하고 그 외의 운동원들은 '여성'이라는 것을 부문의 영역으로서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볼 때 여전히 좌파에서의 '여성'에 대한 관점은 매우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 몇년 사이 무언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글썽 뭐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위에서 나는 변화에 대한 예로 특정 학정조의 작년 여성노동관련 투쟁을 예로 들었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다?' 라는 의문형으로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학정조야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여성노동에 대한 특화된 (마로이) 고민한 바는 없는 듯했다. 겉으로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이 과연 얼마나 심도있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간다. 위의 조직의 한 친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그 친구는 노동법 개정과정 전반에 관심이 있었고 고민을 가져나갔다가 보다 조직 차원의 교양과 정보제공 등으로 법개정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이후 듣게 된, 그 조직의 반성폭력 규약 부결의 소식은 '혹시'나 하는 나의 의심을 더 돋우었다. 물론 지방캠프에서의 인식과 공감의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달리 해석을 하면, 실질적인 여성주의에 대한 근본적 합의와 논쟁의 부족을 반대로 증명해주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변화와 불변, 그 먼 거리 하지만..

이제 진보의 당위로서 여성을 이야기하고 여성의 억압을 계급의 억압의 한 부류로서 이해하는 지리하고 모순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의 억압의 계급의 억압과 독립해 생각할 수 있는 여성의 억압과 계급의 억압을 중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적으로 여성의 입장이라는 것을 견지하고, 더불어 일상적으로 성불평등하고 물성적인 각자의 운동의 지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것들을 바꾸고자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직내 여성위원회와 같은 여성단체의 설립은 조직 내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주의를 견지해나가는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좌파정당(진보정당)의 움직임 중심

:진보정당 여성위원회의 등장

양 진보정당이 비록 각각 그 나름의 한계가 있기는 하나 여성문제에 대한 입장, 여성 당원의 지위 등에서 보수 정당과의 차별점을 그어내려는 대표적인 시도라 하면 30%여성할당제와 여성위원회 건설을 들 수 있다.

양당 여성위원회는 각각 지난 '모성보호 입법화 투쟁'에서 그 나름의 한 힘을 보탠 전력이 있다. 또한 아무래도 노동 운동을 했던 좌파 출신들이 많은 진보 정당 내에서 활동하다 보니 '여성노동'사안에 대한 관심이 많을 법도 하다. 그럼에도 여성위원회는 게토화되어 있는 경향도 띤다. 여성의 문제들이 조직 내부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논의되기보다는, 당위적으로만 이야기되고 있고, 아직 공통의 논쟁꺼리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여위만이 여성의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처럼 인식되고 있는 경향도 다분하다. 어느 당의 자유게시판에 여성노동사안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한 당원이 그 문제는 여위에 물어보라고 리플을 달았는데, 이는 일반 당원들이 생각하는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현재 여성 노동 사안은 좌파 내에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었지만, 반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반성폭력 문제들이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생활에 맞닥뜨리는 문제라는 점일 것이다. 반성폭력은 조직 내의 개개인에게 가부장적인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강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쟁도 격

렐했었다.

이에 반해 여성노동권은 큰 논쟁 없이 표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 민노당 당원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노동권에 대한 논쟁이 잠잠한 이유로는 “아마도 다 아는 경우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이겠지”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후자가 대부분일 것임은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좌파에게 있어서 여성노동권은 기존 노동권 담론의 한 부분이라 굳이 따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들이 ‘보편성’ 속에 포함된다고 쉽게 규정짓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좌파에게 있어서의 여성노동이란 진보적인 집단으로서 이야기해야 하는 당위로써만 남아버렸거나¹⁵⁾

>>사회당과 민노당 여성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진보정당에서 30% 여성할당제는 부족하나마 현 상태에서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아마 그것은 여성의 문제가 전체구조와 관련됨을 인정받고 전체 의사결정과정에서 그것이 논의되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 진보정당과 여성의 관계를 토론하는 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경험이 입증해주듯이, 여성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로 제기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대중들의 조직화된 투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⁶⁾

사회당 여위는 반성폭력 규약 제정 운동 당시 많은 논쟁이 오고 가면서, 당 안에서 당원들 사이의 가부장성에 대한 편차가 상당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사회당 여위는 개인의 의식을 바꾸기보다는 여성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면서, 당내에서 여성의 발언력을 높여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사회당 여위는 선거운동을 통해 많은 아주머니들과 어고생의 지지를 받으면서, 남성운동가로부터 여성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좌파 내에서는 형이라는 물성(sex-blind)적인 말이 쓰이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일상의 문화들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나가고, 당원 개개인에게 여성주의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반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 지부회의 민노당 여위¹⁷⁾는 공동육아 사업 등 여성 활동가의 당내 문제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한다. 여위 활동이 현재 탁아모임 등에 집중시킴으로써 그 활동상에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노당 여위가 여성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고, 지금 여성 당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아와 탁아 시설이라면 일면 한계 속에서도 그 의의를 가진다. 지금 여성당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내에서 평등하게 활동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육아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위원회의 조직력이 아직은 약한데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

15 이에 대해 한 운동가는 여성주의가 하나의 감박으로 다가온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16 시타, “진보정당은 또한 여성의 당일 수 있는가?”, 현대의 이론

17 민노당 여위는 각 지부별로 그 활동이 다르게 진행된다. 중앙 차원의 여위의 경우 당내 여성담론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 일례로 인간 1회 성평등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내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위 구성원이 많지 않아, 뼈뼋하게 활동하고 있다.

적해 있는 상황이라면 여성활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것, 여성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30%할당제를 실행하려 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여성당원들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기에.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현재 여성노동권에 대한 진보 정당 내의 특별히 격렬한 논쟁은 없었다. 이는 여성의 노동문제를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의 한 형태로만 평면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 속에서 노동자 민중이 착취당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여성노동자는 착취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즉, 여성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의 최전선에 있다는 정도로 합의함으로써, 열악한 여성노동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는 남성중심의 노동권을 사 고하는 틀에 여성노동권을 적용시켜 의심없이 동의한다. 여성위원회의 성장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여성위원회의 활동과 발언이 당내에서 여성 노동권을 고민하는 풍토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하나

좌파 단위들과의 인터뷰와 면담들을 통해 우리는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여성’을 짚어보고 또 한편으로 좌파의 운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당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운동의 대중적 표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여성주의적 조직의 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직과 자율적 자치 연대¹⁸⁾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성주의적인 조직¹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2001년 10월 사회당에서는 ‘여성해방’ 선본으로 서울의 한 지역구의 선거를 치렀다. 처음에 ‘여성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러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당(여위)에서는 급진적 여성해방세력으로서 선거를 통해 ‘그동안 발현되지 못했던 대중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시도했다. 그 러점에서 사회당에서의 많은 변화도 큰 성과로 생각한다. 선거 중 많은 아주머니들과 어고생들의 열렬한 지지들을 직접 겪으면서 남성운동가로부터 ‘계급해방’이 아닌 ‘여성해방’도 인간의, 여성의 기본적 권리이고 ‘이들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절실한 문제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사회당 여위와의 인터뷰 정리 중에서

18 ‘조직’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하지 않으나, 기존 좌파조직의 위계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수직적인 형태를 넘어서 평등한 의사소통구조를 지향하는, 동시에 일정정도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서의 모임

3. 2002년,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한다

여성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노동자와 여성운동단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전체 노동자 계급의 문제에 무리 없이 흡수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여성운동과 좌파의 연대를 통해 좌파의 핵심적 비판지점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한다¹⁹). 하지만 지금까지 연대는 한두 개의 특정 이슈에 대해 기계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머물러왔다. 연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선 우선 '서로 다른 복수의 운동'이 존재해야 한다. 또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한 '공동의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공동의 행동은 각각의 운동이 서로에 대해 지배/종속되지 않는 동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성주의와 좌파 양 진영이 여성노동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다. 여성운동 단위에서는 여성의 노동이 갖는 특수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다면 좌파진영에서는 여전히 기존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여성의 노동을 바라보고 있다²⁰). 이렇게 기본 입장이 다른 두 진영의 연대는 시작부터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과 좌파 내부의 가부장성으로 인해 여성주의자 선배들 간에도 '좌파와의 연대'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과 갈등이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현재는 양 진영간의 소통을 방해하던 장애물은 사라진 상태라 말할 수 있는가? 혹은 좌파는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충실한가? 과연 여성주의자는 이전과 같은 '소수자의 정당성'을 공짜로 누릴 수 있을까?

당장 좌파와의 '연대'가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2002년의 우리가 선불리 대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우선 현재의 여성주의자들은 '운동 취급도 못 받던' 여성 운동을 갖 독자화하였고 대개 좌파 운동 진영에서 '튀어나온' 선배들과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실천과 논쟁 속에서의 맥락 있는 비판'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가진 '막연한 거부감'으로 이들의 발언, 이들의 것에 가까워 보이는 사안에 무심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 역시 그 '노동'이라는 점 때문에 받은 좌파적인 사안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즉 자칫하면 그들 식의 '노동담론'에 휘말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반대편에는 부르주아적 여성 노동담론으로 빠질 위험 역시 존재하고 있어 대학 내에서 '여성 노동'은 이렇 수도 저렇 수도 없는 민감한 주제가 되어버렸다.

19 여성노동 문제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뺄출되는 것은 '능력'과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관념에 따라 노동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현상이다. 그리고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적합하다는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라는 좌파의 철학적 신념에 배치된다.

20 여성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 여성의 삶에서 노동이 갖는 위치에 대한 고려를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버림 끝으로 몰리는 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드러내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에게 여성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노동자일 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연대라는 말이 지극히 당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에 관한 상들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연대가 '동맹'이나 '연합'의 상태가 아닌 바라면 또한 어차피 하루아침에 '우리는 연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면 진정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연대' 그 자체에 관한 극추상적 논쟁이 아니다. 지금 대학 내 여성주의 진영에게 필요한 것은 성찰과 자기변화, 그리고 생산적 비판과 개입이다. 좌파 내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의 발언이나 공약이 무책임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하고 강제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반정립적 비판이 아니라 여성주의 진영도 배울 것은 배우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며, 동시에 냉철한 비판 작업을 통해 남이 가진 한계를 여성주의 진영에서 앞서서 깨어 나가보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 어떤 시도 이전에 여성주의자들 자신의 여성노동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고 실천을 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2002년, 올 한해 여성노동에 관한 사안에 연대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나'를 바로 세우기)을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성찰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여성노동 운동 나아가 노동 운동의 전망이 달라질 것이다.

2002년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한다. 이제 그 만남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3. 여대생의 노동 의식과 여성주의적 전략 세우기

>> 여성노동: 왜 여대생을 대상으로 interview를 하게 되었는가?

전반적으로 많은 대학 여성운동단위들이 여성 노동 운동에서 (최소한 대중 운동에서는) 부진한 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대학 내 여성노동 운동은 지난 IMF를 계기로 꾸러진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 위원회'에서 시작해서 이후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이하 '여노대련') 그리고 '여성노동모임'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지난 메이데이 여/생의 해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문제가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기간 여성노동운동 활동은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여노대련에서부터 제기되었던 難題들인 여대생이라는 정체성 문제, 노동 개념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문제 그리고 이에 기반한 활동 방향 수립과 아이템 생산, 기존 노동운동 진영과의 관계맺음 등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로 이에 대한 고민을 되풀이하고 유보하게 된 것에 기인할 것이다.²¹⁾

여성노동 운동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뭉뚱그려 '정세'의 문제와 '관점'의 문제로 서술할 수 있다면, 분명 여성노동이라는 영역에서 두 가지 문제들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으며, 이 두 가지 문제들은 현실 운동에서 혼용되어 문제화된다. 기간 많은 여성노동 관련 활동들은 소위 '정세'라고 부르는 가시적인 상황들이 터질 때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았다. 여노대련의 경우, 여노대련은 '정세적 요구'에 의해 결성되었으나 그 정세적 요구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자체적으로 해소되었다. 이는 연대체라는 위상의 모호함과 참가 단위의 내부적 상황 등의 탓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성 노동권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활동의 방향성 등이 내실 있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한편,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정세의 부재 역시 여성노동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여성노동 문제는 단순히 작업장이나 노동 시장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여성노동 문제를 자신의 현실과 연관짓게끔 강제할 정세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소위 '정세'를 위해 여성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꾀한 몇몇 캠페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성노동조합의 사업이 소규모 단위 사업장의 투쟁 연대 및 조직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하고 있는 학단위들은 학내 운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 또한 전국 여성노동 조합(이하 전여노조)과 연대했던 관악의 경우, 전여노조 조합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중년/기혼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여대생들을 기반으로 한 대학 내 여성노동운동에서 받아 안을 수 있는 문제의식은 많지 않았다. 이는 문제를 발언

21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동안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여성'이라는 관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기까지의 그 기간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리라 생각된다.

하고 활동을 펼쳐낼 우리의 공간과 언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정세'에 기대려 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즉 대학 여성운동 단위만의 언어와 이론이 부재하다는 점은 기간 활동에서 제기된 '노동의 재개념화'가 충분히 의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에서 담당할 현실 운동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한계와 연결된다.

고착상태,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여성노동운동에서 드러난 다양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짚어야 할 점은 여성노동에서 아직 대학 여성운동 단위가 명확하게 '독자적' 목소리를 낸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²²⁾ 이는 대학 여성 운동 단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함에도 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학 여성운동 단위로서 여성노동을 발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모색해보기 위한 우회로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는 대학 여성노동운동의 기반은 여대생들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형식 역시 단답형 설문 이 아닌 심층 면담에 가까운 인터뷰를 택했다. 이 인터뷰는 많은 여대생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통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학내에서 여성노동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여대생들은 노동 문제에 무관심한 것일까? 인터뷰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가설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물론 많은 여대생들이 자신을 '(예비)노동자'로서 정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분명 그녀들은 졸업 후의 삶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대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들과 학내 여성노동운동 단위들이 풀어나가고 하는 내용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그 이유로는 우선 여대생들이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정보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매체에 의해 생산된 career woman에 대한 이미지만을 받아 안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 풀어나가는 여성 노동 운동들이 많은 여대생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운동을 구체적으로 고민함에 있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짚어가기 위한 우회로로 우선 설문 결과를 개관적으로 짚어보면서, 대학이라는 공간에 몸 담고 있는 여대생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22 물론 앞서 지적한대로 여성 노동권이라는 문제를 중심사안으로 여성운동단위들이 연대한 경우는 많았으나, '대학 여성운동 단위로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학단위는 분명 학단위라는 position을 기반으로 다른 단위와 다른 독자적이면서 좀더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심층적으로 논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학내에서 여성노동운동을 펼쳐갈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자.

part1

>>>여대생의 꿈, 커리어 우먼

사회가 인정하는 노동은 '생산'을 통한 자본의 창출이고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온 가사 노동은 그것과 무관하게 여겨진다. 교육 과정에서 남성들과 어느 정도 동등한 지위를 누려온 여대생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노동을 하는 것은 삶의 일부, 아니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녀들은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여성, 어머니의 삶을 여태껏 보아 왔고 사회가 강요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모성의 신화는 그녀들에게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TV 속의 '커리어 우먼', 그것이 설문²³⁾을 통해 만난 학내 여성들, 그녀들이 원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다.

1) '선택'과 '능력',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

여대생들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욕구는 크다. 한국여성연구소(2000)의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 응답자의 99%가 졸업 후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지니고 있다 한다.²⁴⁾ 설문 응답자들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았고, 나아가 여성에게 조금 더 비전이 있어 보이는²⁵⁾ 전문직, 프리랜서 등을 선호하였다.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98학번

"대학-대학원-우학-고수 또는 연구소 연구원" -00학번

"러시아어 통역사, 단지 전문성 있는 직업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일생을 안락하게 살아가는 생각" -97학번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무선설비 산업기사라고요. 방송국 들어갈 때 가산

23 설문은 부산대, 경상대, 연세대, 아주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서울대, 단국대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캠퍼스 따라, 같은 캠퍼스 안에서조차 계열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가지 있는 생각들이 많았고, 앞으로 인용하는 인터뷰 내용 역시 그러한 부분들이다.

24 강이수, 신경아, 「여성과 일」, 동녘, 2001

25 기업에 취직하여 일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막연한 의식 정도는 하고 있었다.

점을 주거든요. 미리 미리 따 놔야지...4학년 때 방송 기술 쪽으로 공부해 놔야겠어요." -00학번

"영화 관련된 것들" -98학번

만일 졸업 후 취직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얼마 동안? 졸업 후 몇 개월 이내?? 계속 준비해야지 뭐 어쩌겠나. 남자들은 몇 년이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 시도하는데 여자한테 이런 질문을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닌가" -98학번

"자신의 점을 높이도록 하겠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중이라고 해도 꿈을 버려져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00학번

"취직이 안될까? ^^: 다른 공부를 해서 취업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00학번

"자격증 공부를 더 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겠죠" -00학번



현모양처..

대개 학년이 낮을수록 취업이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이어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취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고, 계속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고 실제 취업의 문에 부딪혔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조건과 안정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역시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 간다.

"그래도 계속 취직자리를 알아봐야지... 정교직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거나." -석사 4학기

"조건을 조금 낮춰서라도 일을 할거예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죠. 아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위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97학번

"노그보다 열심히 취업하려고 노력했다 ...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나 자신의 인생에 질질 끌려 다니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다 접어치우고 서울로 올라갔다. 정말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 근데 그 무렵에 어쩌까지 생각이 많이 들었다. 공부하는 데 대한 회의라기 보다는 대학원 졸업 후 얻을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 회의 ... 그래서 다시 정리 싹 하고 러시아로 날아왔다 ... 일단은 지금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 속에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아 볼 생각이다." -97학번

"남자보다 취업에 불려하니까 안정된 직장을 찾게 되고, 취직이 된다 해도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혼해도 쟁쟁한 경쟁이 없는 공무원 같은 직장을 찾게 되죠" -97학번

*언니의 권유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한다. 경쟁률이 거창이긴 하지만 직업이 안정적이란 측면이 장점이려고 생각 한다" -99학번

여대생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크고 실제 그에 따르는 노력을 하고 있음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 추이의 차이가 줄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는 IMF 이후 남성의 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²⁶⁾ 능력 위주에서 여성에게 덜 불리하다 여겨지는 전문직 역시 그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체 취업자 중 전문가는 각 년도 5.7%인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36.8% 정도이다. 그나마 여성 직종으로 분류되는 간호사와 선생님을 포함한 보건, 교육 전문가 분

연도별	전체	여자	남자
1980	85.6	68.1	95.2
1985	63.9	41.5	79.1
1990	61.8	47.3	70.5
1995	69.7	59.3	77.2
1996	71.4	61.7	78.4
1997	67.6	59.3	73.4
1998	55.1	50.6	58.4
1999	55.2	53.6	56.6
2000	56.0	53.4	58.6

표 1 성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²⁷⁾ (단위:%)

자료: 교육부, 「교육 통계 연보」.

야를 제외하면 14.8% 정도일 뿐이다.²⁷⁾ 이공계 계열의 여학생 대부분이 원하는 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서울대 자연대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학사과정 31.5%, 박사과정 18.5%이고, 공대의 경우 학사과정 10.8%, 박사과정 4.6%이다.²⁸⁾ 더구나 여성 박사 4명 중 3명이 실업자라는 소식²⁹⁾은 상황의 열악함을 극도로 보여준다. (또한 프리랜서라고 선호되는 직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와 달리, 비공식 부문의 노동으로 노동시간, 임금, 노동 환경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기법이 적용되는 일반 사업장보다 열악하다. 그녀들이 꿈꾸는 여유롭고 자유로운, 그러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그들의 취업 욕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곳이라 한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고 한다. 그녀들은 이미 여남의 차별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경쟁 사회만은 객관적이라

26 위와 동일한 책

27 통계청, 「인구 총조사」, 1995

28 서울대 통계연보, 2001

29 「여성과 일」의 교수 신문 인용 부분

믿는다. 모든 것은 '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령 알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일반적인 여성과 다르다.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야기하는, 사회가 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사회가 여성에게 원하는 역할은 남성에게 예기되는 '능력'이라는 것과 사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여성적 업무(여성성과 sexuality)를 요구하는 것은 직종 자체의 분리로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의 모든 여성 일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정아씨의 「대졸 여성의 노동 경험과 직업의식 신화」의 사례들을 통해 능력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대졸 여성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좌절하고 괴리를 느끼는지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잡무 형태의 일들은 '여직원'³⁰⁾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면서 공식적인 업무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의 반복으로 여직원들은 본무를 충실히 하기 힘들어진다. 주어지는 일 자체부터 여성들에게는 보조적이고 단순한 업무이고 이러한 경험들은 여성들에게 직업을 통해 어떠한 전망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직업의식 결여', 나아가 '사회적 능력 없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미혼 인구의 교육 정도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이다.³¹⁾

1995년	여성	남성
미혼	57.9	60.0
중졸 이하	10.6	28.3
고졸	76.3	71.6
대졸 이상	84.8	94.4

1997년	여성	남성
미혼	53.2	56.8
중졸 이하	7.0	23.1
고졸	74.3	73.0
대졸 이상	88.1	88.1

1998년	여성	남성
미혼	46.3	55.9
중졸 이하	4.1	23.4
고졸	63.3	68.0
대졸 이상	15.9	88.3

IMF 이후 주로 보조적 업무를 맡게 되는 고졸 여성들-주요 업무의 대졸 남성들의 경제 구도를 확연히 볼 수 있다. 실제 1998년 사무직 여성 취업자의 학력은 고졸이 66.8%이고 대졸이 27.6%였다고 한다.³²⁾ 당시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관리직을 맡는 여성의 비율은 임원, 부장, 과장 급이 4.3%, 2.7%, 4.8%³³⁾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사회적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 다분히 남성중심적인 개념이고, '선택'이라는 것은 애초에 여성들에게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2) 더 이상 부업이 아니다.

여대생에게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일은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는

30 '여직원'은 남성 사원, 여성 사원과 분명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31 경기여성통계, 2000

32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 연보, 1998

33 노동부, 1999

말을 굳이 붙인다. 설문에서 만난 여대생들은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여성도 독립된 인간으로서 생계를 고려하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한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여자들은 일 안해도 남편이 먹여살려는데... 나도 그 말의 의미가 어자들이 예부터 남자의 부속품으로 여겨진 의식에서 나온 거 아닌지, 그걸 반영한 게 아닌지... 실제로 여자도 먹여살리는 경우 많거든요."

"일은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든 남성에게든 같은 문제이다. 생계의 수단이자 자아실현인 것이다."

"굳이 여성의 일이 자아실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회가 포장한 것이다. TV에서 나오는 캐리어 우먼들은 대개가 부모님의 경제력이 발생해서 가능한 상류층이다.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닐 수 없다."

"누구에게나 일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더 이상 결혼이 남성에게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여성에게 또한 생계유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여성들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남성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가정폭력이나 외도 등 그래야 할 경우에) 현실적인 여건을 조성해 준다."

다른 하나는 다른 일반 여성과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우로,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일을 안하면 아예 밥벌레 취급을 당한다. 그에 비해 여성은 일을 할 때에 물론 더 힘든 면이 있겠지만 '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맞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원해서 가사/육아를 전담하는 경우는 없다. 대개는 짐을 저버린 것이다. 어떻게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남편 돈으로 살아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나도 '내 짐을 위해' 일할 것이다. 보통 여성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어쩔 것 같아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입장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전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가치 폄하에 따라 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반 여성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데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대생들은 더 이상 가족임금제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족 단위로 묶이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여성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의 일은 부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인식과 현 경제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직종 따라 여남 간의 임금 차가 다르기도 하지만 대개가 많게는 50%미만에서 적게는 20%정도로 임금의 차이가 큰 편이다. 요즘과 같은 경기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취업률이 오히려 증가했던 것은 비정규직 70%가 덧대어진 위와 같은 임금차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행하는 일의 가치가 어떻게 읽히는지, 이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가족임금제이다. 여대생들의 꿈과 현실은 아직 멀다.

(단위:천 원)							
직종	성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계	1,561.4	1,746.1	2,042.6	2,170.4	2,145.0	2,104.3
	남	1,565.4	1,750.9	2,049.7	2,179.6	2,154.5	2,119.9
	여	1,378.3	1,507.5	1,716.8	1,850.5	1,854.9	1,847.3
2. 전문가	계	1,128.6	1,232.7	1,382.8	1,470.8	1,526.0	1,685.6
	남	1,176.7	1,298.0	1,457.4	1,547.9	1,609.6	1,782.9
	여	910.3	976.3	1,128.1	1,202.6	1,250.7	1,364.2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계	923.0	1,046.6	1,197.2	1,285.5	1,313.8	1,338.0
	남	980.7	1,113.9	1,258.6	1,358.5	1,381.6	1,432.3
	여	629.5	705.9	825.2	901.2	907.3	979.8
4. 사무직원	계	784.5	882.6	999.5	1,045.7	1,061.5	1,083.3
	남	921.8	1,033.0	1,160.4	1,214.8	1,229.2	1,294.3
	여	566.5	652.9	745.5	795.2	819.3	872.5
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시장판매근로자	계	643.2	734.1	838.1	877.2	868.2	869.0
	남	785.8	880.9	1,018.0	1,064.5	1,057.8	1,037.5
	여	558.0	642.0	727.0	796.9	768.0	765.1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계	764.1	837.6	961.1	1,054.6	1,044.5	1,097.0
	남	871.4	950.7	1,067.7	1,158.3	1,140.9	1,199.4
	여	491.5	537.9	601.8	667.4	663.0	726.5
8. 장치,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계	760.9	854.5	945.7	1,006.4	993.7	1,083.2
	남	855.3	961.2	1,049.1	1,105.3	1,080.4	1,179.5
	여	489.8	552.8	638.8	688.2	666.2	721.0
9. 단순 노무 직근로자	계	586.7	658.0	700.9	748.0	737.2	773.2
	남	639.5	716.0	767.9	817.1	810.8	849.2
	여	450.4	506.6	550.0	594.2	589.8	623.5

3) 결혼은 선택이다.

자신의 일을 당연히 가지고 평생 해 나가리라 생각하는 여대생들은 가족임금제를 별로 개의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역시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 한다.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는 결혼 조건을 위해 대학을 다니던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그녀들은 당당히 일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유로워진 그녀들의 결혼관을 들어본다.

취업하지 않고 결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타깝다. 자신의 인생이므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제적 보상의 측면이 아니라라도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사회적 활동은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인자들에게 있어서도 여성노동이 '내 일 감지 않은' 사안으로 여겨졌던 탓 역시 크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물질세성, 지나친 운동주의 및 부르주아성 등 역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³⁶⁾ 우리가 채워갈 여성노동이라는 담론 안에는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문제 인식 및 권리 쟁취, 그리고 계급적 관점까지 모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여성 노동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전개와 함께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 모두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노동의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경제적 '전체' 구조로서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제인식이다. 이것은 기간 많은 노동 담론에서 노동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해소시켜 온 것과는 달리 노동 문제를 sexuality 문제와 결합된 독자적 문제로 상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변화와 관련하여 생산과 재생산 노동, 또는 생산과 생활을 동시에 포괄하는 여성노동의 전개를 의미한다.

part2

-노동과 섹슈얼리티

많은 담론에서 마찬가지로 있지만, 기존 노동 담론에서도 여성은 하나의 섬으로 남겨져 있었다. 노동 담론의 gender-blind에 대한 수없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나서야 비로소 기존 노동 담론에 '여성'이라는 담론이 하나의 종속변수로나마 첨가될 수 있었다. 물론 여성이라는 개념이 '종속변수'로서 노동 담론에 붙여진 것만으로 여성 노동에 대해 제대로 발언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성'이라는 관점으로 '여성의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간 성과를 살펴보고, 좀 더 확장된 분석틀을 제시해보려 한다.

기간 이루어져 왔던 '노동의 재개념화'는 공/사 분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적영역에 남겨져 있던 여성의 노동을 드러내는 데 중심을 두고 있었다. 노동의 재개념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감성노동 및 재생산 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행하는 노동의 성격 역시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왔다. 이는 여성 노동 문제가 공적 영역/사적 영역을 횡단하는 문제임을, 그리고 공/사의 분리라는 개념 역시 명확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성의 sexuality 문제는 노동담론과 별개의 영역에서 발언되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기간 여성의 sexuality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성폭력 담론과의 접합 외에서는 다른 연계지점을 찾지 못한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sexuality가 노동과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던 것은 노동과 sexuality가 별개의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 문제의 인식과 정 자체가 남성 중심적/여성 배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여성 억압에 대해 발언

36 사실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여 판단할 수 있을지는 매우 조심스럽다. 이 글에서는 우선 대학에서 여성 노동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우려하면서, 여성운동의 지나친 물질세성 및 운동주의로의 매몰을 경계하려 한다. 어타 급진적 사회 운동과 비교할 때 여성운동의 특징은 '일상성'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성에 매몰된 나머지 학내 여성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정세와 대학 내 상황과 연결점을 찾는 데 소홀할 경우, 그 운동은 부르주아적/자유주의적으로 결론나기 쉬우리라 생각된다.

하는 지점들은 좀 더 폭넓고 다양해져야만 한다. 단일한 방식으로 여성 억압을 이슈화하는 것은 그 운동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 억압의 총체적 측면들을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성억압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의 운동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에는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여러 가지 세분화된 정체성들이 강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성/gender라는 틀로 발언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과 sexuality의 연관 관계를 지적하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재개념화를 기반으로 어떠한 실천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이것은 앞서 다소 뭉뚱그려 서술한 여성 노동에서의 難題 중 '관점'의 문제에 대한 제안이며, 이를 기반한 실천은 새롭게 만들어 갈 '정세'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성 노동 :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의 전반화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기를 강요받던 여성에게 공적 영역이 허락되기 시작한 이래로,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 시장에 진입한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 보조적, 주변적, 저임금의 소위 '여성 직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여성 직종'이란 미숙련, 단순 노동 중심의 직종을 의미하는데, 산업 전반에서 서비스업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는 '여성 직종'이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점차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이 전반화되는 과정으로 여성노동이 재편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여성다움'이란 사회적 성과 sexuality를 모두 지칭하며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은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성별 정체성 및 gender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에게 부과되는 감성 노동 및 가사노동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의 sexuality를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에 부과되는 측면이다.



흔히 '여성에게 적절한 노동'으로 간주되는 노동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역할 및 성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서, 교사, 가정부, 간호사, 요리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한때 그 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했던 노동을 직업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³⁷⁾ 또한 많은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직종에 취업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살핌과 배려 등을 기대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공/사 영역이 서로 분절된 것이 아님을, 여성의 노동이 이미 성별 정체성 및

37 V. Beechy는 "노동시장은 성적으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성차별 관계가 생산 조직 그 자체에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설명한다.

젠더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부과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가사 노동과 감정 노동은 공적 영역에서도 역시 '여성의 일'로서, 그리고 여성 노동 전반에 개입함으로써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9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인 서비스업 부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여성들은 그 안에서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서비스 노동을 기대 받는다. 나레이터 모델이나 행사 도우미의 경우, 그녀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인 노동 자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 '아름다운 몸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몸을 전시하는 노동에서 여성들은 자신을 상품화해야 하고,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몸/성'으로만 평가받고 물상화되면서 다시 스스로를 상품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남성에 비해 노동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여성에게 있어 외모란 그 불리한 사회 조건을 만회하거나 능가하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있어 '외모'를 다른 능력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성매매라는 형태로 국한되던 여성의 섹슈얼리티 교환이 여성 노동의 전반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K.Barry(1995)는 '성애화된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접근한다. Barry에게 있어 성애화된sexualized 사회란 "여성이 계급, 인종, 종교 등을 막론하고 성적 대상화의 일부가 되며, 성이 여성의 신체와 동일시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Barry의 지적대로 현 사회는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에게 있어 불평등한 구조로 성애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며, 그 영향은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성애화된 사회에서, 성매매와 여성에 대한 용서, 성적 암시가 노동 가치의 한 부분이 되는 여성 노동 사이의 구분은 희미해진다. 사무직 여성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녀의 노동은 남성과 같은 내용의 업무뿐만 아니라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잡무,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회식이 있으면 반드시 동참할 것을 강요당하고, 남성에게 술을 따라야 하며 외부 손님이 왔을 때는 '분위기 상' 참석을 요구받는다. 여성에게 있어 술좌석의 시중들기는 곧 업무의 연장인 것이며, 여기에서 기대되는 것은 성적인 서비스이다.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여성의 일'로서 섞여 드러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여성이 수행하는 '본무'이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전반화는 곧 정상화로 이어진다. 정상화normalization는 어떤 것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기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결국 사회적 조건과 개인적 조건 사이의 어느 지점을 선택해가며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있어 제한된 정보 및 선택지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어느 사회에서든 '자연스러운 것'은 그 사회의 체제 및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적 노동'은 고정되었다기보다는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 배열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권력 관계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legitimation한

다.³⁸⁾

>>>여성 노동 전반에 개입하는 여성의 sexuality

앞서 서술한대로, 사회의 성애화 경향이 노동 영역으로 확장된 현상은 여성 사원의 채용 기준에 외모 및 신체 조건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 여성 노동 전반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노동 자원으로 교환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점차 정상화된 것으로 간주될 때, 많은 여성들은 그나마 노동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성형 수술을 받는 것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설령 이러한 관문을 거쳐 어떤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sexuality는 직접적인 배제/차별의 기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sexuality가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sexuality는 직접적인 배



제와 폭력의 기제로서 사용되고 동시에 노동 자원으로 이용된다. 여성에게 있어 sexuality는 그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 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노동자 전반에 개입한다. 또한 사회의 성애화가 점차 정당화되면서 여성에게 성적노동은 일상적인 것으로서 인식된다. 이는 자신

38 "오늘 사회에서는 외모도 능력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남성들에게도 외모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 추세겠지? 그런데 자신의 예쁜 외모만 이용하려 하는 애들을 보면 좀 짜증난다. 초해보이기도 하고, 예쁜 게 사실 부럽기도 하지만, 끝만 애들이 저러지 하고 생각해보면..."(김희태 99, 국제통상학과)

"외모가 최적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싫다. 나는 끔찍하게 싫고 지내는 것이 편한데 주위에서 강요하면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 나이가 들면 화장을 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싫다. 그러나 변하는 동기들을 보면 자신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서울대 00, 자연과학부)

"남성 사원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으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성차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서비스업? 하긴 점차 서비스업에 여성들의 성적 측면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똑똑 뽀뽀한 몸매를 한 나레이터 모델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겠지라고도 생각한다. 일이 그런 거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다."(서울대 98, 철학과)

이러한 현상은 간접 차별 및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노동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경향 등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정상화'되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의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인 노동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직종이 아닌 여타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여성'이라는 성으로 균질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무직 노동자, 선생님, 의사, 변호사 등의 여성들에게도 역시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그녀는 우선 여성으로서 간주된다. 그렇기에 그녀는 몸을 전시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보살핌 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회식 등에서 적극적으로 '접대'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의 sexuality가 노동 전반에 스며드는 이러한 현상은 노동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되며, 다시 그것은 개별 여성들의 '노동자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우선 앞서 지적했듯이 여성의 노동 시장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여성에게 있어 노동시장이 이미 성애화sexualized, 젠더화gendered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일을 부차적이고, 낮은 가치를 가지며, 잠시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하는 사회 통념과 연결되는 것이며 한편으로 이 통념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정상적인 것으로서 정당화됨에 따라, 개별 여성들 역시 이러한 통념 안에서 '노동'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선택'하게 된다.³⁹⁾ 즉, 이는 여성의 노동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part3

-여대생에게 말걸기, 이런 거 어때요? ^^

1)우리도 벌어 먹고 살자.

여성 노동을 가지고 문화제를 꾸려본다. 고학번들 뿐만 아니라 전학년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노동의 현실과 그 대안을 알린다.

★거리 선전

☆자보전

-성희롱, 여성 잡무 등 대처법

-여성 노동 관련 조직들 소개(노조, 여사원 모임 등)

☆거리 난장

-여성 노동 사안에 대해 서명 운동, 펌이나 엽서 등 판매

39 인터뷰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프리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이는 '자유로움', '고소득' 등의 단어로 표상되는 career woman의 이미지 탓도 크겠지만,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소 수세적인 전략으로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성과 함께 하는 관료 집단에서 자신들의 능력이 평가되기 쉽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인지한다.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활동 공간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곧 그녀의 능력이 모든 공간에서 통용되고 인정받을 수는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닐까. 결국 프리랜서는 이미 성별화되고 젠더화된 노동시장 영역에서 능력만큼의 가치라도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미 성별화되고 젠더화된 노동시장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상황에서 한 개인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아닐까.

-취업 정보집 판매

-퍼포먼스, 조형물

-취업 대비 인식 알아보기(심리 테스트 등)

★간담회, 학술제

;기존의 남학우 중심의 취업 정보과 취업 간담회를 거부한다. 여성 노조, 산별 노조 등과 함께 해보기.

-정세에 대한 토론회 판

★영상제

;여성노동자의 하루를 조명하는 독립 영화 등... 쉽게 다가가거나 정세를 타는 영상물 상영

★먹고살기 지원제

;공연판, 자료집 발간

★공모전-언니 멋져요~

;소수의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온갖 차별적 관행과 사회 편견 속에서 곳곳이 사회 노동을 하는, 또는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선배들의 수기 소개. 여대생들에게 현실적인 역할 모델 제시.

2)새내기 맞이 사업

★새내기 새로 배움터나 교양학교에서 반성폭력 담론 뿐 아니라 여성 노동도 이야기하자.

- 교양학교에 여성 노동 사안을 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커리 소개나 교사 세미나 진행

- 새내기 교양을 위한 비디오 제작: 여성 노동 관점 잡기

- 여성 노동 현장 가상 체험 : 가부장적인 상사를 대하는 역할극

★여학우 선-후배 네트워크

여학우들의 선후배 유대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도록 한다. 학번 선배 같은 식으로 끈을 만들어 소개해주는 자리 마련. 이런 여성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을 각 단대 학생회에 강제하는 것도 좋을 듯.

3) 노동 자원으로서의 여성 sexuality 반대하기

;이 지점은 위낙에 정상화(normalized)되어 있어 많은 여성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반대 운동과 함께 풀어내기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노동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논의를 살펴보면 자본과 여성의 sexuality의

관계를 짚어본다.

★학내 행사에 나레이터 모델이 오는 경우 등에 대응하기

*보론:

1. 성차별적 구인광고 제대로 보기

구인 광고는 취업의 첫 번째 과정이다. 구인광고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내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자. 제시된 구인광고는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다.

<사례1> H 교육 미디어

연구개발(남): 대졸 교육학 관련 전공자, 교육 정책 연구 개발직

웹 디자인/ 광고 디자인(여): 전공 무관, 20-25세(xx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남녀 고용 평등법상 차별에 해당된다.

1)남녀를 분리 모집, 성별 채용 인원 배정

2)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 형태로 채용(여성에게만 나이 제한 有)

<사례2> L pastfood

영업 전문직: 19xx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군필자

■남녀 고용 평등법상 차별에 해당된다.

여성에게 용모기회를 주지 않는 것(군필자는 남자만을 모집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정)

<사례3> H 생명 보험

기획/관리/영업직- 연령제한: 남-1975년, 여-1977년 이후 출생한 자(여자의 경우 용모 단정한 자)

■남녀 고용 평등법상 차별에 해당된다.

1)직무 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 채용 조건 제시(여성에게만 용모 제한)

2)객관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여성의 채용 기회 제한(연령을 다르게 제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전국 여성노동 조합 kwunion.jinbo.net 02-708-4623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www.equaline.or.kr 0605-555-5050

한국여성 민우회 www.womenline.or.kr 02-737-5763

2.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및 해결 방식

1)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보다 피해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모욕감, 심리적인 충격, 근로조건 및 고용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몇 가지 유형들을 분류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 및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행위

-성기 등 신체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혹은 팩스,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2) 대응하기⁴⁰⁾

-성희롱을 사소한 문제로 보고 그냥 넘기지 않는다.

-숨기지 말고 주위에 믿을 만한 동료, 선배 등에게 털어놓는다.

-증거를 남겨 놓는다(녹음, 일지)여기에는 장소, 시간, 날짜, 구체적 내용, 목격자, 증인, 당사자의 대응, 당시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둔다.

-여성단체 등 외부기관과 상담을 한다.

-사업주와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결 절차

40 민우회,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0)

- 사건에 대한 기록, 녹음, 녹취, 사실 확인서, 진술서, 공증 등으로 자료를 만든다.

(사실 확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 본인과 주변인,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 동료, 여직원회, 노동조합에 상담 및 해결방안 논의

- 사업주에 해결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내용증명 발송)

- 여성단체 등 타 단체와 공동대응

- 언론보도 등을 통한 여론화. 단 이 경우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명예훼손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단, 공언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요구 내용

공개사과, 각서, 감봉 징계 등 인사조치, 해고 등 가해자에 대한 규제

심리상담: 가해자, 피해자

회사 내 제도적 장치 마련: 단체협약 체결, 신고센터, 예방교육 등

4. 2002년 대학 내 여성 노동운동,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2001 지난 해 여성관련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노동에 대한 고민의 부재에 대해 짚어보았다. 다음으로 지난해 좌파의 여성담론을 짚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 개입해야하는지 우리 스스로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았다. 나아가 앞으로 대학에서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았다.

>>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길 위의 우리

우리는 이제 민족민주 운동에 헌신했지만, 결국 여성에겐 돌아온 것이 아무 것도 없었더라는 앞서간 여성주의자의 경험을 지나, 좌파운동전선의 가부장성과 물성성, 남성중심성에 급진적으로 반대하고- 일부는 그들과 결별하여 급진적 여성독자세력으로- 선 가까운 선배들의 경험을 경유하여, 성별화된 계급개념을 바탕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노동운동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과거 학생운동은 그 자체 구조적으로 가부장일 뿐 아니라 여성문제를 운동 내부로 받아들여 스스로 변화시키기 보다 오히려 그것을 배제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도 여전히 그러하다고 생각하지만).⁴¹⁾⁴²⁾ 이에 우리는 성별개념을 간과한 채 그들만의 단일한 계급의식에 기반한 좌파운동에 지속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여성의 관점에서 노동의 문제를 바라보고 담론을 생산하고 확장해야 한다.

여성노동의 문제는 '여성노동자들/여성운동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소위 좌파진영에서 여성노동문제에 대해 '신자유주의 하의 노동시장유연화의 최전선에서 가장 억압받는 여성노동자'라는 평면적인⁴³⁾ 동의의 수준에 머무르는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노동자 계급의 문제에 무리없이 흡수 포괄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운동과 좌파의 상호침투 및 재구성을 통해 좌파의 핵심적 비판 지점으로 재위치되어야 한다.'⁴⁴⁾

>> 다가온 우리의 투쟁, 그 현실을 바라보며

여성이 공식 영역에서 퇴출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7배 정도 높았으며, 대거로 임시직, 시간

47 시타, 1999, mission impossible, 〈고대 문화〉 기고글

42 현재 좌파 학생운동단위도 내부 여성활동가의 요구와 조직적 차원의 여성국의 설립 등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43 단순히 노동문제의 연장선 하의 여성노동문제로 바라보는.

44 시타, 여성주의 좌파와의 새로운 싸움, 1999

제, 계약직 이루는 '일'과 '실업'의 경계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⁴⁵⁾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행방한 결혼⁴⁶⁾ 아래 임시적 완충적 노동자로 인식되어온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들보다 우선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법률적으로 노동자 범주에 속하지도 않아 고용계약관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비공식 부문 노동자로 내몰리며 기본적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통계로 나타내기도 어려운 정도로 사회에서 아직 많이 드러나 있지 않고, 동시에 수없이 다양하게 새로 생기고 있는 것이 비공식 부문의 노동영역이다. 모두의 관심영역 밖의 노동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산재해 있다. 출장요리사 서빙 아르바이트를 뛰는 친구들, 방송작가 혹은 영화스텝이라는 자유로운⁴⁷⁾ 멋져보이는 직업을 상상하는 우리들, 인터넷 통신 판매원, 학교 앞 약세서리 집에서 구경하는 수공예 물건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약세서리 조립원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많은 비공식 부문의 노동이 생겨나고 점점 더 많은 비공식 경제의 영역이 비공식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통계에 따르면 90년대 말 많은 제 3세계 국가의 비공식부문 경제가 비농업 분야 GDP의 50~60%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비공식부문 여성이 전체의 60~80%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현재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부문 노동에서 소리없이 착취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ILO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비공식 부문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최하위등급인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기에 비공식 부문의 문제는 여성노동의 문제라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⁴⁸⁾

거센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거기서 또다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의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자본의 세계화는 성별이라는 권력관계는 물론이고 인종, 계급 등의 기존의 위계 질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초과 이윤을 통한 자기 확대를 하고 있다.⁴⁹⁾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노동시간유연화 전략은 노동억압과 성 억압을 동시적 필수적 작동원리로 활용한다.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국제적 노동분업의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저임금의 제조업분야에서 하청체제를 통해서 초과착취를 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상황, 서비스 노동은 이미 여성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한 노동의 증가들이다. 마리아 미즈가 이야기한 자본축적 과정의 여성의 몸/노동의 희생 메커니즘과 식민화의 관계가 현재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45 김현미, 1999, 2000년 한국 여성은 노동자가 될 수 없는가, 또 하나의 문화, p16

46 시타, 여성주의 좌파와의 싸움, 1999

47 흔히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48 서울여성노조의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 자료집 참조

49 김현미,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문제 사회인가? 2000

앞서 세번째 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노동운동에 있어 중요한 두 요소는 정세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노동현실에-학내외적으로-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를 통한 운동의 지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이라는 특정 공간 속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학을 벗어난 일반 노동현실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문제지점들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일이다. 바로 나의 내 주변여성들의 문제에 민감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더 넓게 여성노동의 문제와 어떻게 접합시킬지, 그를 통해 학내에서 어떻게 운동으로 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신자유주의 하의 여성노동자가 겪는 착취와 내가 발 딛고 있는 '여기'에서 '나의 문제' 혹은 내 주변 사람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지점을 찾고 운동의 지점을 찾을지.. 더불어 중요하게 그러한 고민에 대한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 여성노동모임들에서 보여졌던 '논의와 고민' 위주의 활동이 아닌, 학내에서 그 고민들을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학외에서의 다양한 투쟁들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실천이 함께 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발전 없이 지속되는 고민과 그로 인한 정세부족 그리고 또 고민이 지연이라는 순환적 흐름이 반복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형을 파악하고 관점을 잡기 그리고 행동하기. 이 삼박자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여성노동을 여성주의적으로 (급진적으로) 사고하고,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실천하고자 연대모임을 제안한다.

기존의 방관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좌파진영의 물성적 계급의식과 평면적 여성주의 수공이라는 모순된 자세의 해체와 껍질 벗기기, 공/사를 넘어선 여성주의적 새로운 우리의 건설과 구성의 기획을 하고자 한다. 여성 노동 정세를 함께 분석하며 대학 사회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실천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자에 의해 여성주의에 입각한 시각에 천착하여 힘차게 활동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